

자유연재

단순 견관절 검사의 중요성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이용걸, 전철우

Significance of Simple Shoulder Test

Yong Gil Rhee, M.D., Cheol Woo Chun,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견관절 클리닉을 방문한 4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순견관절 검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활동과 견관절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남녀의 발생빈도는 221례, 188례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1.6세(7-77세)이었다. 견관절 질환의 빈도는 동결견이 137례(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돌증후군의 64례(15.6%), 회전근개 파열이 62례(15.2%)등의 순이었다. 동결견 환자의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은 10.(공을 위로하여 20m 이상 못 던짐, 83.9%)항목이었으며 다음으로 7.(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4Kg가량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지 못함, 81.8%)으로 나타났다. 충돌증후군 환자에 있어 가장 어려운 항목은 2.(수면중 어깨가 아파 잠을 깬)인 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는 7.(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4 Kg 가량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지 못함)항목이 가장 어려웠다. 안정성 환자는 69%에서 각각 불편함을 호소한데 비하여, 12.(일상적인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항목에서는 비외상성 불안정성 환자는 87%, 외상성 불안정성 환자에서는 49%에서만 불편함을 호소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견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나이, 과거력, 이학적 검사등 이외에도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진단에 참고하여 견관절 질환의 보다 정확한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